

## ‘이동하면서 정주하기’의 실천과 공간

서울시 동자동 쪽방촌의 조선족\*

Moving-Dwelling Practice and Space:

Chosunjok Migrants Living in Dongja-dong Jjockbangchon, Seoul

박소연\*\*

이 연구는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을 들여다보며, 그들의 이동과 정주가 이분법적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침투하고 있음을 포착한다. 연구는 심층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해 쪽방촌에서 비가시화되었던 주체인 조선족의 거주를 담는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동을 내재화한 채로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하며 이동과 정주가 얽혀 있는 삶 속에서 선택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공간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는 기존에 빈곤 이주민 연구가 이동과 정주를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면서 양자택일적 관점을 제시해 왔던 것의 한계를 지적한다. 참여자들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불안정성을 지니면서 공간을 임시 거처로서만 활용한다거나, 계도화된 공간의 경계를 강화한다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동과 정주의 상호침투를 드러내고 있었다. 연구는 ‘이동하면서 정주하기’의 실천이 쪽방촌이라는 공간을 재조율하는 지점을 들여다보며, 주민들을 공간에서 축출하며 동시에 쪽방촌 안에 머무르도록 하는 작용이 서로 되먹임하며 빈곤의 ‘덧’을 형성해 온 쪽방의 기존의 공간적 구조에 균열을 내는 지점을 발견한다.

**주요어:** 이동 정주, 쪽방촌, 이주민, 상호침투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4.Plus 미래국토공간 혁신 교육연구단’(교육부 4단계 BK21사업)으로 지원된 연구임.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soyeon.geo@snu.ac.kr).

##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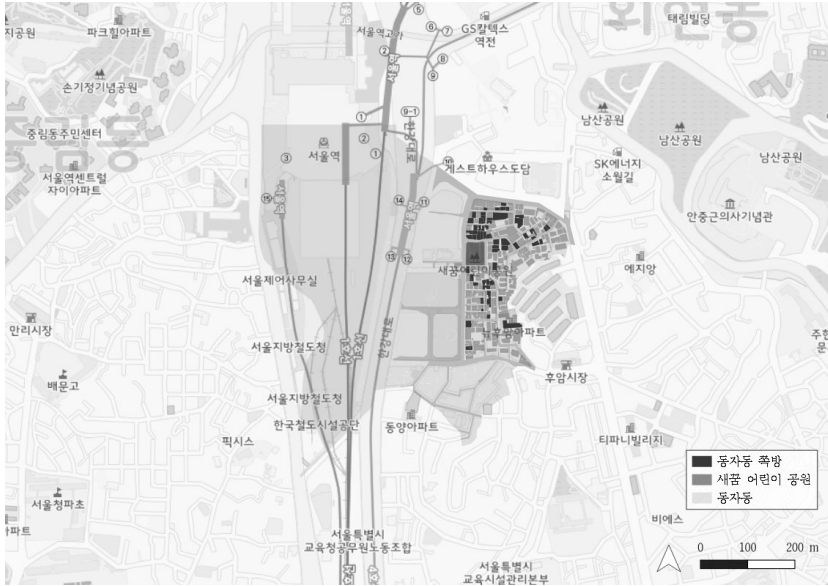
본 연구는 쪽방촌에서의 조선족의 거주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특히 주목하는 공간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이다. 동자동은 국내 최대 규모의 쪽방 밀집촌이다. 성인 남성이 겨우 누워 발을 뺄 수 있는 1~2평 남짓한 방들이 70여 개의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 안에 조밀하게 모여 있고, 약 1,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sup>1)</sup> 서울의 중심, 거대한 빌딩들 사이에 어울리지 않게 위치한 이 동네는 빈곤한 사람들의 최후의 주거지로서 여겨진다. 간단한 환기도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지만, 20만~30만 원 정도의 적은 월세를 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가 지내지 않도록 최소한의 거주할 곳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동자동 쪽방촌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한국인 주민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동자동의 주민은 한국인들만이 아니다. 저렴 주거지는 도착국에서의 이주민의 삶과 함께 주로 논의되는 공간이다(박윤환, 2011; Lewis et al., 2015; Piper, 2022 참고). 특히 저렴한 주거는 조선족들이 주거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으로(이석준, 2014), 동자동 주변 부동산·인력소개소에 따르면 일 소개를 받거나 집을 구하는 사람들 중에 조선족의 비율은 절반이나 된다. 하지만 조선족의 거주지와 수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전혀 제공되어 있지 않고, 쪽방촌 주민 지원 시설인 쪽방 상담소 또한 복지 대상자가 아닌 조선족들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에 쪽방촌에서 이주민인 조선족을 연구하는 것은 기존에 가시화되지 않았던 공간의 다층적인 면을 포착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는 동자동에서 거주하는 조선족을 들여다보며 그들의 이동과 정주가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침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쪽방촌이라는 공간에서 조선족의 이동과 정주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

1)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0. “서울역 쪽방촌 현황 및 방문시설 현황”.

<그림 1> 동자동 쪽방촌 지도



출처: 서울역 쪽방 상담소 지도 및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

음에 집중하며 이러한 조선족의 실천이 쪽방촌이라는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조율하는지 들여다본다. ‘조선족의 이동과 정주는 어떻게 얽히고 있는가? 이동하면서-정주하는 이주민의 몸은 쪽방촌을 어떻게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는가?’가 연구를 관통하는 질문이다.

서로 비슷하고 다른 이유들로 이주해 온 조선족들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경로에서부터 이어진 높은 이동성을 지니며, 여기에는 ‘이동함’과 ‘이동됨’이 공존한다. 기본적으로 법적 지위와 사회적 역할에 따라 그들을 이동하도록 만드는 다양한 사회적 기제가 작용한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재개발이 진행되면 이사가 불가피하며, 중국의 가족들과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이유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 또한 조선족들을 이동하게 만든다. 동시에 자신들의 욕구와 상황에 따른 자발적이고 전략적인 ‘이동함’이 존재한다. 경제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삶의 가치를 위해 이동한다. 한편 조선족들은 이러한 이동의 실천, 욕구, 구성요소들을 내재화한 채로 동자동의 환경과 관계 맺고 있다. 공간을 공유하고 동네의 네트워크에 참여한다.

쪽방촌 조선족의 이동과 정주는 분리 불가능하게 얽혀 있고, 이것은 동자동에 새로운 면면을 형성한다. 이동에 새겨진 흔적들은 동자동의 생활에서 영향을 미치며 존재를 드러내고, 동자동에 차이들을 들여와 동질적인 공간을 역동적으로 재구성한다. 자신의 ‘이동함’을 활용해 쪽방촌을 견고히 하고 있는 구조적 기반에 균열을 낸다. 그들의 삶에서 이동은 또한 동자동에서 지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채로 이루어지면서, 공간에 새로운 유입과 의미를 가져온다.

위의 논의를 통해 연구는 기존의 이주민 연구가 이동과 정주 각각의 개념을 특정하게 맥락화하며 저렴 주거지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취약성’을 드러내려는 점을 지적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주민의 이동 혹은 정주의 한 측면에만 집중하거나(이석준, 2014; 이화용, 2015; 박배균·정건화, 2004; 한성미·임승빈, 2009; Premji, 2017), 이동과 정주를 함께 논의할 때 이분법적 시선을 전제하였다(Shin, 2021).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는 이동과 정주에 특정한 맥락을 부여하기 쉽게 만든다. 이동은 이주민의 불안정함을 보여주는 요소(Marcu, 2019)이거나 글로벌 시대의 전략적 요소로 여겨졌고, 정주는 안정성이나 특정한 공간적 영역에 갇혀 있는 제한적인 것으로 이해되면서 하나가 다른 것을 보완하거나, 대체해야 하는 양자택일적 관점으로 설명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논의가 정주, 이동 각각에 주목하며 이동의 ‘자유’, 정주의 ‘안정성’ 등 각각이 특정한 가치를 가지는 행위로 개념화해 왔던 지점을 넘어 서고, 이동과 정주가 얽혀 있음을 포착했을 때 드러나는 의미들에 주목한다. 이동하면서 정주하는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주민들을 이동하도록 강요하는 기제와 그 안에 머무르도록 하는 작용이 서로 되먹임하며 불안정하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쪽방촌 공간의 원리를 형성해 왔던 외부 정책과, 이동과 정주를 분리하여 일부만을 포착해 왔던 기존 연구의 시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동자동 쪽방촌의 조선족, 한국인 거주자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2022년 3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세 달에 걸쳐 19차례 동자동을 방문하였다. 특히 참여관찰은 본 연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어떻게 일상적인 이동과 머무름을 경험하고 있는지, 어떻게 환경(milieu)과 관계 맺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 연구자는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며 공간에 참여하였다.<sup>2)</sup> 이를 통해 동자동의 지형, 물건 등 물질적 요소와 그것이 연구참여자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동자동의 다양한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공간, 사람과 접촉하고 네트워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4월 9일에 새꿈어린이공원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세 번 정도 연구참여자들이 주변 교회에서 제공한 음식을 나누어 주어 거리 위에서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연구참여자의 고물 수집 노동을 관찰하고, 리어카를 고정하거나 주변을 정리하는 등 간단한 노동에 참여했다. 관찰 직후에는 필드노트를 작성하여 연구의 구조화 및 서술 과정에서 활용하였다. 참여관찰은 인터뷰를 통한 언어적 의미 분석에서 얻을 수 없었던 지점을 드러내거나, 대화에 새로운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인터뷰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보완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서도 더욱 넓은 시간적 범위에서 연구참여자가 겪어온 경험에 다가가고, 개인의 욕구나 감정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쪽방촌의 개인들은 고정된 일정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방문 때마다 다른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공간에서 비공식 인터뷰와 공식 인터뷰를 유연하게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방 안에서 진행된 경우도 있었고, 거리 위에서 진행된 경우

2) Jesper Aagaard(2016)은 보고, 느끼고, 감각하며 사람·사물과 함께 존재(present)하는 방식으로서의 참여관찰은 물질적(material)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며 인간과 물질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존재의 체현되고(embodied), 물질적인 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lt;표 1&gt;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	연령/성별	국적	
A	70대/남성	중국(조선족)	주민
B	80대/남성	한국(귀화)	주민
C	60대/여성	중국(조선족)	주민
D	60대/여성	중국(조선족)	주민
E	70대/남성	한국	주민
F	70대/남성	한국	주민
H	남성	한국	사회복지사

도 있었다. 특히, 조선족 주민 연구참여자는 세 차례 이상, 회당 한 시간 이상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더욱 깊은 이야기들을 듣고자 했다. 조선족 주민들의 주소지에 대한 공식적 자료는 부재했고, 외적으로 특정해 내는 것 또한 불가능하며 윤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답사 때 주변 봉사단체로부터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한 명의 연구참여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며, 해당 연구참여자를 키인포먼트로 하여 다른 연구참여자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확장해 나가거나, 거리에서 연구자의 신분과 목적을 밝히고 인터뷰를 요청했다. 짧은 대화와 같은 비공식적 인터뷰를 포함하여 총 8명이 참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직간접적으로 인용되는 연구 참여자 주민들은 <표 1>에 나오는 7명이다.

인터뷰 질문은 심층 인터뷰의 특성에 맞게 연구참여자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였다. 공통적으로 조선족 주민들에게는 동자동 쪽방촌에 살게 되기까지의 경로, 거주 동기, 일상과 이후의 이동계획 등을 물었고, 한국인 주민들에게는 조선족 주민들과의 관계와 마주침 등을 물었다. 사회복지사 연구참여자에게는 현재 동자동 쪽방촌 및 쪽방촌 거주 조선족에 대한 복지정책 상황, 정책의 변화에 따른 조선족들의 대응 및 개인적인 조선족 주민들과의 관계와 네트워크 경험 등을 물었다.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현장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다음을

주장한다. 첫째, 쪽방촌 조선족의 삶에서 이동과 정주는 복잡하게 상호침투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거주하는 조선족은 공간을 재조율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셋째, 앞선 연구의 발견들은 이동과 정주를 서로에게서 분리시키는 쪽방촌 공간구조의 정치와 기존 문헌 연구들의 시각에 비판적 시선을 제시한다.

위의 논의를 전개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논의를 통해 이동과 정주가 이분법적으로 이해되어 왔던 역사와, 그것이 이주민과 빈곤이라는 특정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를 검토하고, 그것이 가지는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이후 실제로 본 연구가 포착한 쪽방촌 조선족의 이동, 정주, 그리고 그 얽힘을 기술하고, 나아가 그것이 공간을 어떻게 재조율하는지 살피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논의: 이동과 정주의 상호 침투

이동과 정주가 상호침투함은 본 연구를 이끌어가는 중심적 프레임워크이다. 기존의 이주민, 빈곤 연구에서 이동과 정주가 서로의 존재를 탈각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며, 한 가지의 맥락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공간에서의 거주를 사유한다.

이동과 정주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를 분리시켜 놓고 각각을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정주주의의 사고는 오랫동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김진택(2015)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사물에게 수행하는 자리 잡음의 행위로서 공간을 이해하며, 육체적 거리와 방향의 관계 안에서 고유한 자리를 점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실존이 '장소에 뿌리내리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주하는 장소의 경계를 침투하는 이동이나 매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어리, 2007). 즉, 정주주의는 특정한 장소를 구성하는 영토와 경계, 그리고 그 내부의 사물들과 함께 머무는 것을

중시한다.

이후 인프라와 테크놀로지가 발전하여 이동이 현대인에게 일상적인 행위가 되면서 공간적 경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이동에 대한 논의가 증가했으며, 모빌리티(mobility)의 관점을 통해 다양화되었다. 모빌리티는 물리적인 이동(movement)보다 더 큰 범위를 포괄한다.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존 어리(J. Urry)는 이동할 능력, 이동하는 주체인 군중, 사회적 계층 이동, 이주·이민과 같은 반영구적인 이동을 모두 ‘모빌리티’라고 정의했다. 즉, 모빌리티 연구는 이동의 지리적 경계(거리), 이동하는 주체(대상)의 위치성, 이동과 관련된 정치와 권력 전반에 관심을 갖는다(이용균, 2015). 본 연구에서 이동은 이러한 모빌리티적 관점을 수용하며, 실제 물리적 자리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동의 다양한 맥락들을 포괄한다. 조선족의 이동은 법적 지위, 사회적 역할, 사회적 관계 등과 긴밀하게 관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동에 주목하는 것은 정주주의가 정주에 존재론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동할 수 있음’에 자주 우월성을 부여했다. Foucault(1973)의 연구는 소수의 집단이 연대에서 배제되는 배경을 공간의 물리적 분리로부터 바라봄으로써 시공간적 분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이유신, 2019). 이때 이동은 공간적 단절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연결고리로서 작용한다. Kaufmann(2000) 또한 모빌리티 자본이란 광범위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묶어놓던 많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자원 또는 능력을 의미하며,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확장하기 위한 필수자원으로 간주되고 하였다(윤진화·노시학, 2015).

기존의 이주민 연구들은 많은 경우 위의 이분법적 시각을 전제하며 이동과 정착 중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이주민의 정착에 중점을 두는 연구들은 밀집지역의 형성, 주거지 분리와 계토화를 주로 다루었다(백일순, 2017). 연구들은 밀집 지역의 형성, 특성과 의미, 지역의 차별과 인식 등에 집중했다. 특히 조선족과 관련해서는 가리봉동 벌집촌, 대림, 영등포 등 저렴 주거지가 위치한



곳의 조선족 인클레이브(enclave)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이석준(2014)은 가리봉동, 대림2동, 자양4동 인클레이브 연구를 통해, 이화용(2015)은 대림 2동 조선족 밀집지의 사회문화적 경계 연구를 통해 각 인클레이브가 가지는 특성과 계도화되는 측면을 분석하였다. 박배균·정건화(2004)는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에 작용하는 배제와 포섭, 잊어버림의 정치를 연구하였다. Erdal(2021)은 초국가주의에서 나타나는 이주민의 다중적 공간 소속감을 다루었다. 한편 이동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는 도착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불안정성(Premji, 2017)이나,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이동의 실천을 하는 이주민의 맥락(Murrugarra, 2011)에서 이야기되었다. 이 때 정주는 이동을 위한 잠시의 거처지로서, 표준적인 정주의 조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여겨졌다.

개인의 이동과 정주 실천을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도 존재하였으나, 여전히 이동과 정주는 이분법적 포착 아래에 놓여 있었다. Shin, H.(2021)은 높은 이동성을 지닌 조선족의 불안정성과, 그에 대응하는 방식으로서 개인들의 순환적 이동(circular mobility), 장소 만들기(place-making)를 제시하며 이동이 미치는 영향과 이동, 정주가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을 보다 다층적으로 제시했으나, 각각의 전략으로서의 이동과 정주가 상호적으로 침투하고 연결되는 그 사이의 관계는 논의되지 않았다. 두 가지는 공존하여 얽히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 양자택일과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이동과 정주를 떨어뜨려 놓고 각각의 실천을 분석하는 것은 이동과 정주를 특정한 부동의 맥락으로 재개념화하는 것을 전제한다. 특히 그것이 빈곤과 같은 사회적 약자성과 결합되어 논의될 때, 그들의 삶의 방식은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정주와 이동 각각이 ‘결여’된 것으로 읽힌다. 예컨대 홈리스는 정주의 안정성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한 전치(displacement)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이 때 이동은 불안정한 사회적 상태를 만드는 원인으로 해석된다. 이렇듯 각각의 연구에서 이동은 자유로움 혹은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불안정성으로 읽히며, 정주는 정착의 안정성 혹은 이동의 자유가 없는 갇혀 있음의 의미를 부여

받는다. 예컨대 Marcu(2019)는 이동을 피로감, 미로, 혹은 불안정성에 대한 저항 등으로 개념화한다. 반대로 Legeby(2010)는 이주민이 공간적으로 집중된 빈곤 밀집 지역의 고립과 소외, 제한된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 발견한 쪽방촌 이주민의 삶은 이동과 정주의 특정한 한 가지 맥락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끊임없는 이동을 지향하면서도 정주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순된’(이지선·이영민, 2019: 96) 것에 가깝다. 이동과 정주는 한 가지의 고정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한 가지의 결여로 인해 취약해지지 않는다. 이동과 정주를 분리시켜 놓는 것은 이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 Appadurai에 따르면 이동과 흐름을 낭만화하는 것은 거주권의 보장이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도시 빈민들을 고려했을 때 특히 문제적이다(Morley, 2017에서 재인용). 하지만 마찬가지로, 홈리스행동의 이동현 활동가가 말했듯 쪽방은 ‘홀러야’ 하는 역할이 있다. 그것 없이는 ‘갈 곳 없는 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감금되고, 착취되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재료로 소모’되는 ‘덧’이 강화된다(홈리스행동 생애사 기록팀, 2021: 26).

정주하는 삶의 방식이 그저 유목하는 방식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정주의 삶 속에 유목적 삶이 내재화되고 유목적 삶 속에 거주의 삶이 조건화되는 복잡한 인식이 수행되고 있다(김진택, 2015).

이에 본 연구는 이동과 정주가 상호침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상호침투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변화하는 공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이동과 정주의 ‘상호 침투<sup>3)</sup>’란 이동과 정주가 각각 독립적이고 대립적인 의미로

---

3) ‘상호침투’라는 용어 자체가 서로 침투할 대상을 상정하고 그 사이의 침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분법적인 관계를 함축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이동, 정주의 이분법적 개념이 서로에 의존해 있고, 따라서 더 이상 분리불가능하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상호침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서로를 가능하게 하는 관계이기에 분리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용어로서 사용된다. 이는 이동의 결여가 곧 정주이고 정주의 결여가 곧 이동임을 전제하는 이항대립적, 상호보완적 시선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이에 더해, 상호침투는 단순히 개인의 삶에 이동과 정주가 함께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동과 정주의 연속적인 과정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김진택(2015)은 하이데거의 정주적 사유가 들뢰즈의 영토화 운동과 연결되는 지점을 포착하면서 ‘이질성들이 변화와 흐름을 통해 존재하고, 그러한 요소들이 어디에서나 접촉될 수 있는’ 특성으로서의 유목성을 이야기한다. 본 연구가 말하고자 하는 이동과 정주의 상호침투는 이러한 점에서 들뢰즈가 이야기하는 ‘유목적 삶(Nomad)’을 통해 잘 드러난다. 들뢰즈의 유목적 삶은 정주의 영구성과 부동성에서 벗어나며 특정한 목적지로서의 점들 사이를 잇는 선으로서의 도구적 이동성을 부정한다. 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탈주만을 하는 것이 아닌, 이질적인 접촉을 경험하며 타자들과의 관계망 안에서 ‘사막이나 초원처럼 불모의 땅이 된 곳에 달라붙어 거기서 살아가는 법을 창안’하는 것을 포함한다(이진경, 2019). 이때 공간은 이러한 탈영토화/재영토화의 운동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그 과정에서 ‘영토성과 중심성이 부단히 위상 변환을 경험하고 실험하는 장소’가 된다(김진택, 2015).

기존 연구에서 이동과 정주의 연결관계를 이야기하는 시도는 존재해 왔다. Collins(2011)는 초국가적인 이동을 실천하는 이주민이 영구적인 정착이 아닌 ‘영구적 임시성’을 내재한 채로 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연구들을 통해 논의되기를 요구했다. 이지선·이영민(2019)과 정예슬(2022)은 청년들의 집만들기와 노동자들의 저항적 장소만들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동과 전치를 겪은 자들을, 대안적 실천을 통해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는 주체’(정예슬, 2022: 110)로 위치시키며 이동과 정주의 공존을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지선·이영민(2019)에서 이동은 거주 측면에서 불안정성으로 자주 의미화·재현되고 있으며, 정예슬(2022)에서 전치는 장소만들기를 위한 일시적·과정적 상태로 전제됨으로

써 안정된 장소의 추구를 보다 강조했다. 또한 이동과 정주 사이의 역동적 관계를 다룰 때 여전히 특정한 계층의 이주민 이동과 거주를 형성하는 차별적 구조와 사회적 맥락을 다루는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Glick Schiller and Salazar, 2013). 즉, 이동을 내재한 채로 공간에 생활함으로써 공간에 변형을 만들어내는 주체를 포착하는 사유에 공감하는 동시에 이동과 정주의 복잡한 얽힘이 특정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며, 본 연구는 이동과 정주가 상호침투하며 공간과 관계 맺는 모습을 도시 취약 계층의 주거지인 ‘쪽방촌’과 그곳에 살고 있는 조선족을 통해 설명해 내고자 한다.

### 3. 이동을 내재화한 삶, 그 속의 동자동 쪽방

본 절에서는 동자동 쪽방촌에서 조선족들의 거주가 그들의 반복적인 이동의 맥락 안에 위치하면서 끊임없는 이동 가능성, 경험해 온 이동의 역사와 맞물려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조선족 개인들은 높은 이동성을 체화하고 있다. 개개인의 이동은 법적 지위, 공간 정책, 사회적 상황 등 사회구조적 요구와 배경의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구성된 이동에 대해 개인들은 전략적으로 대응한다(Shin, 2021). 불안정성과 자유라는 양가적 특징이 얽혀 있는 이동경험 속에서 개인들은 이동을 내재화하고, 또 정주의 공간을 선택한다. 동자동은 이러한 궤적 위의 한 점으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동자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기뿐만 아니라, 동자동에 이르게 된 경로와 이후의 계획에서 나타나는 이동을 포괄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했다. 여기서 조선족들의 이동은 단순히 ‘취약성, 사회에 의한 수동성’ 혹은 ‘자유’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맥락들을 드러내 놓는다.

동자동의 조선족은 끊임없는 이동의 맥락을 가진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동하는 것에 익숙하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신을 둘러싼 새로운 이동의 흐름에 자연스러운 듯 반응했다. 그들의 이동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

어 있는 것은 일이다. 인터뷰를 진행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으로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노동을 통해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으며, 그것이 제1의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동은 한국 내에서의 이동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60세가 넘는 나이였지만, 한국으로 귀화한 B씨를 제외하고는 일을 계속 하고 있거나 잠시만 쉬고 있는 상태였다. 이동을 추동하는 원인으로서 일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에는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도 관련이 있다. B씨는 귀화를 했기 때문에 동네의 다른 한국인들처럼 기초수급의 대상이었지만 귀화를 하지 않은 조선족들은 복지의 대상이 되지 않아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노동은 불가피했고, 자연히 그에 따른 이동의 빈도가 높았다. C씨는 중국에서 퇴직 이후 더 나은 노동시장을 찾아 한국으로 왔다. 젊을 때는 모르겠지만 나이 들면 한국이 낫다며 중국에서는 이 나이 때 청소도 안 써주며, 인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B씨도 중국에서 살면 별기 힘들고, 한국에서는 하루 노가다를 뛰면 14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고 했다.

중국에서는 뭐가 있나하면 나이 50 다 되면 일 안 시키잖아. 사람 많으니까. 한국에는 나이 80 돼도 시키잖아. 우리 거는 안 시케. 옛날에 우리 부모들 50 다 되면 농사 못 시케. 일 안 시케. \_A씨

노동하는 이주민의 몸의 이동에 작동하는 사회구조적인 기제는, 노동 시장을 중심적 고려점으로 하여 구성되고 변화되어 온 조선족의 유입에 대한 대한민국의 정책의 역사와 연관 지어볼 때 더 명확히 드러난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3D 업종의 인력난에 대응하여 ‘산업기술연수생제도’ 등 조선족이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수단들이 생겨났지만 1999년에는 노동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하에 중국동포가 재외동포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에서 제외되었다. 다시 3D 업종 활성화를 위해 2007년 방문취업제가 도입되었고, 무연고동포들이 국내에 체류하며 노동할 기회가 만들어지면서 유입이 증가하였지만, 이 또한 특정 업종에서는 내국인 노동시장을 잠식한다는 우려에 따라 수를 한

정하여 동포의 입국을 허가하였다(정기선 외, 2013).

현재 중국교포들은 귀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 89%가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무제한으로 3년마다 연장이 가능한 F-4 비자를 소유한 동포의 수가 가장 많다.<sup>4)</sup> 이에 정부는 2008년부터 국내 노동시장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단순노무를 하지 않는 조건에서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대학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F-4를 부여하고 있다. 이 때 간병인, 가사도우미를 포함했다가 제외하는 등 단순노무의 범위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sup>5)</sup> 즉,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사회적인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 체류할 수 있는 시간과 출입국이 가능한지의 여부, 그리고 실제로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식은 계속해서 달라진다. 국내에서 노동하는 조선족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꾸준히 대응해 왔다.

조선족의 이동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외적 요인에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코로나19 시기에 동자동 쪽방촌은 ‘죽음이 고여 있는 공간’으로 여겨졌다. 연구자가 거리를 걷다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하루에 대여섯 명이 죽어서 나간다,” “오늘도 엠블런스를 보았다”는 말이 습관처럼 들려왔다. 하지만 이곳에 살고 있던 조선족들은 오히려 이동했다. D씨와 함께 살면서 B씨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한 조선족 주민은 중국에 있는 아들이 코로나19에 걸려 아들을 보기 위해 65만 원을 주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돌아갔다. B

4) Kosis 통계자료. 2020.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5A&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5A&conn_path=I2)(검색일: 2022.5.10).

5) 국가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 2018.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E%AC%EC%99%B8%EB%8F%99%ED%8F%AC\(F-4\)%20%EC%9E%90%EA%B2%A9%EC%9D%98%20%EC%B7%A8%EC%97%85%ED%99%9C%EB%8F%99%20%EC%A0%9C%ED%95%9C%EB%B2%94%EC%9C%84%20%EA%B3%A0%EC%8B%9C](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E%AC%EC%99%B8%EB%8F%99%ED%8F%AC(F-4)%20%EC%9E%90%EA%B2%A9%EC%9D%98%20%EC%B7%A8%EC%97%85%ED%99%9C%EB%8F%99%20%EC%A0%9C%ED%95%9C%EB%B2%94%EC%9C%84%20%EA%B3%A0%EC%8B%9C)(검색일: 2022.5.5).

씨는 관리하고 있던 건물에 사는 조선족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나갔다고 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것도 일을 해야만 하는 조선족에게 이동할 수밖에 없는 간접적인 이유가 되었다. 한 주민은 자신이 청소하는 건물에 살고 있던 조선족이 코로나19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 방세를 내지 못해 쫓겨났다고 했다. C씨도 원래는 식당 일을 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은 고물을 수거하고, 그것들을 고물상에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이 많이 줄어 겨우 월세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서 일과 그에 따른 거처는 사회적인 위치의 불안정성과 얽히며 계속해서 변화한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동에는 노동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요구, 차별뿐만 아니라 그것에 응답하는 개인의 대응전략 또한 작용한다. A씨는 중국에서 60세에 퇴직한 이후에 한국에 입국한 후 구로에 집을 두고 인력소개소에서 일을 소개받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했다. 하지만 일을 바꾸며 돌아다니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소개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속고’, 또 그 부조리함에 ‘뿔내는’, 즉 저항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인력 소개로 그는 박근혜 정부 이전에 세종시로 국무총리실을 이전하는 일에 투입되었다. 처음에는 1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8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었다. 다시 서울로 왔다가 다른 사람의 소개로 보수로 9만 원을 준다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공구리일’)을 하러 갔다. 집에서 쉬는 것보다는 나아서 가겠다고 했지만, 막상 가보니 다른 한국인 노동자들은 14만, 15만 원씩을 받고 있었다. 하루를 일하고 차별에 관해 사장에게 건의했더니 10만 원으로 올려준다고 해서 조금 더 머물러 있었지만 결국 그만두었다. 다른 일을 시작한 후, 사장이 일을 잘 하는 A씨에게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며 복귀를 제안했지만, 그냥 그만두겠다고 했다. 전주에서 일을 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뿔여 있었는데”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서너 달 만에 그만두었다.

그, 교포라서 안 준다 그래…… 다른 데 갔어. 오라 그러는 거야, 10만 원 준다고. 안

간다 그러니까 더 준다. 와 오라 그러니까 그 철근 반장이 …… 내 있을 때는 일이 막 하루에 스무 차가 나오는데 내 없으니까 10바구니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열이 받은 거야. \_A씨

거주의 공간은 이동과정에서 갖게 된 정주에 대한 생각과 이후의 이동을 고려한 선택으로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삶의 경로 안에 위치하며, 동자동 방은 그러한 다수의 점들 중 하나이다. 대림에서 인력소개를 받으며 일할 때 A씨는 구로에 짐을 두었다. 35만 원을 주는 지금보다는 훨씬 큰 방이었지만, 돌아다니면서 일하면 그곳에서 먹여주고 재워줬기 때문에 방에 머무를 일이 없었고, 결국은 “공짜로 방세 내는 기분”에다가 혼자 살기에 넓다는 생각에 방을 빼고 동자동으로 처음 이사했다. 동자동에서 지낼 때에도 무역 일(보따리 장사)을 하며 한 주에 세 번씩 배에서 자고, 중국의 여관에서 머물다가, 그곳의 식재료들을 사왔다.

노동에 특정한 강도와 정도의 이동을 규정하는 정책, 사회적 차별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적 전략들의 얽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동자동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은 불확실한 이동의 가능성을 내재화하고 있다. 현재 동자동에는 재개발이라는 또 다른 이동의 맥락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공공재개발을 향한 움직임과, 그것에 대항하는 민간재개발의 주장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하는 것으로서 동자동에 50%의 공공임대 비중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공공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주민들은 이사비 약 60만 원과 주거이전비 약 8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이전비는 신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보증금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sup>6)</sup> 하지만 이는 한국인 세입자들의 경우이다. 조선족의 경우에는 귀화한 B씨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비만을 지원받고, 그들

6) 국토교통부, 2021, “쫓방, 고시원 주거지원으로 포용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에게는 동네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는 선택지만 주어진다. 연구자가 나중에 중국에 돌아갈 계획이 있냐는 질문을 했을 때, 연구 참여자들은 이미 재개발에 따른 이동을 내재화한 채로 “쫓아내면 가야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연구 참여자 중 유일하게 중국에서 입국할 때부터 기존에 동자동에 거주했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15년 동안 동자동에 거주해 왔던 C씨 또한 재개발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가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동자동에 사는 조선족들은 끊임없는 사회적·개인적 이동에의 추동을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이동하며 공간에서는 벗어난 채 떠도는 개인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공간에 존재하는 개인이었으며, 이어지는 절에서 이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 4. 이동하면서 정주하기: 쪽방촌에서의 ‘유목적’ 삶

동자동의 조선족은 이동을 내재한 몸으로 동자동에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것은 환경(milieu)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일이므로, 조선족이 동자동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그들의 몸을 둘러싼 환경을 포괄적으로 살피기를 요구한다(정택진, 2021 참조). 조선족은 대체로 동자동에서 분리되어 있는 존재로서 여겨져 왔다. 연구 과정에서 한국인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조선족은 문화적·언어적 차이로 인해서 가깝게 지낼 수 없는 이방인이며, 한국인과 일정한 크기의 일과 공간을 두고 경쟁하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시선들이 들려왔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자가 관찰한 바는 조선족들이 동자동에 위치한다는 것만으로 동네의 환경, 사람과 긴밀하게 관계 맺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동과 정주의 얽힘,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식이 공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탈·재영토화의 과정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다. 조선족은 동자동에서 지속적인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를 경험하고, 이러한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은 주체를 둘러싼 환경, 즉 공간과의 관계와 함께 드러난다. 유목적인 삶을 실

천하면서 동시에 공간과 밀접하게 관계 맺으며 머무르는 것은 전통적인 이동과 정주 개념 중 한 가지로 묘사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다. 본 절에서는 공간의 물질, 개인의 행위, 사회적 의미가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통해 조선족이 동자동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동시에 이동하고 있음을 함께 읽어내면서 동자동 쪽방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한다.

조선족이 동자동에서 지내는 것은 개인들의 전략과 의미가 복잡하게 얽히며 새로운 이동과 관계 맺기가 끊임없이 생산되는 기간이다. 그것은 이동 중의 짧은 임시적 거처, 혹은 이동이 없는 정착의 시간 등으로 단순하게 설명될 수 없다. 연구 참여자들은 동자동에서 살면서 중국과 한국을 계속해서 드나들고 있다. C씨는 2012년과 2016년에 중국에 다녀왔다. 2012년에는 한국에서 건강 검진을 하며 발견한 혹 때문에 수술을 하러 다녀왔고, 2016년에는 모아둔 돈을 은행에서 빼야 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서 옮겨 두었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했던 물질들과의 관계의 강도는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이러한 관계에 따라 또 다른 이동, 그리고 새로운 공간과의 조우가 생겨난다. C씨는 한국에서 은행 보증을 들었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몰았을 때 무례한 답변을 받아 한국에서의 보증을 모두 해지했다고 했다. 2016년에는 모아둔 돈을 가져올 생각으로 달러로 바꾸어 두었지만, 오히려 그 탓에 한국에서 출금할 수 없게 되어 언젠가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즉, 끊임없이 이동하는 삶이 곧 매 순간 공간과 분리되어 떠도는 것은 아니다. 연구참여자들의 이동경험에는 한국에서 살던 기억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후의 이동과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경험이 된다. A씨는 2018년에 한국에서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 완전히 중국에 정착할 생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중국에 가서도 오래 있지는 못했다. 중국의 문화보다 한국이 좋았기 때문이었고, 인터뷰에서 ‘고향’, ‘뿌리’라는 언어도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 인자, 중국 갔어. 여 안 산다고, 중국 가 산다고. 나이도 먹고 뭐 일도 하기 싫

고. …… 가가지고도, 못살겠어. …… 가니께 춤도 출 줄 모르고, 술도 못하고, 친구가 없어 …… 마장 처야 친구가 많아. …… 그런 거 취미가 없어. 남들 다 배울 때는 돈 벌러 댕기고.

고향이라 완 거 아니야, 살다 보니까 여기 좋아서 사는 거지. (큰 집은 거기 있는데 도요?) 좋아서 사는 거지. 또 우리 형제들도 다 여기 있고. 뿌리가 여기 있어 그런 거야.

\_ A씨

D씨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2년 후에 어머니와 아들을 보러 중국에 갔다. 이후 한국의 음식과 생활습관이 그리워서 돌아왔다. D씨는 언젠가 완전히 일을 하지 못 하게 되면, 가족들이 모두 중국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이 그에게 살기 편안한 곳이기도 했다.

집에 가서도, 시간 오래 못 있어요. (일하셔야 돼서요?) 아니, 여기 오고 싶어서 그래. 집에 어머니 있어도, 아들 있어도 그래 오래 못 있어요. 사람이 이상하죠. …… 한국이 잘 맞아. 먹는 것도 좋고. \_ D씨

A씨는 처음 동자동에 거주할 때 동네에 빨랫줄을 걸어 두었다. 이후 중국으로 잠시 떠나고 청주에도 잠시 머물렀지만 다시 동자동으로 돌아왔고, 그때 빨랫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삶이지만, 정주의 흔적은 일시적이지 않았다.

동자동에서 정주하는 것의 전략적 의미를 활용하는 것과 그러한 전략적 의미가 거주공간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은, 한국 내에서 다양한 거처들 중 하나로 동자동을 선택하고 거주 공간으로 영토화하는 것에서 재차 드러난다. 동자동에 오래 거주하고 현재는 조선족들이 모여 있는 건물에 입주해 있는 한국인 주민 E씨에 따르면, 주변에 서울역과 인력사무소가 많아 일을 구하기 쉽다는 동자동의 장점이 조선족들에게 매력적인 거주 이유가 된다. 조선

족 D씨는 식당을 옮겨가며 김밥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 살고 있던 대림은 직장과 멀어 동자동으로 이사했다. B씨는 후암동 등 주변에서 이사를 하며 지내다가 한 건물에서 집주인에게 관리인 제의를 받아 월세를 내지 않고 환경이 괜찮은 방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들에게 조선족이 많이 모여 사는 대림과 구로는 오히려 매력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대림으로 장을 보러 다니고 가족에게 송금을 하는 등 일상적 이동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었지만, 거주할 만한 곳은 아니라고 했다. A씨는 구로에서 지인들이 계속 술을 마시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싫어서 “도망왔다”고 하며, 동자동으로 이사하자마자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고 했다. B씨 또한 대림은 “범죄가 많고, 시끄럽고, 싸우는” 곳이며, 동자동에서는 더 편안하다고 표현했다. D씨는 2주에 한 번씩 일을 쉬는 일요일마다 대림에 가서 장을 보는데, 그곳에 살면 “돈이 헐프다”고 이야기했다. 동자동에서는 돈을 더 쉽게 모을 수 있었다.

동자동이 더욱 유용한 공간이 되는 것은 음식 네트워크 때문이다. 토요일마다 교회가 새콤어린이공원에서 무료 배식을 하고, 화요일 목요일 오후 네 시에는 다른 교회가 공원에서 예배 시간이 끝나면 나눠준다. 다른 날에도 연구자가 방문할 때마다 방 안에는 도시락들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C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생각이 없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이 동네가 좋은 게, 첫째는 밥을 먹을 수 있고’라 답했다. 동자동의 음식 네트워크는 단순히 음식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쪽방 앞길에서는 조선족, 한국인 할 것 없이 먼저 저녁을 받아 온 사람이 지금 어디서 저녁을 주고 있는지, 메뉴는 어떤 것인지 공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B씨와 C씨는 배식을 받기 위해 공원에서 줄을 서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C씨는 작년 겨울에 자신이 먹지 않는 김치나 과자 받은 것을 주면서 같은 건물에 사는 조선족 주민과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장점으로서 외부적 지원 또한 조선족의 법적 지위에

의해 언제든지 변화할 가능성 아래에 놓여 있다. 영토화 이후 따라오는 탈영토화의 움직임은 낯선 경험이 아니다. E씨는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 조선족들에게 해주는 지원이 작년부턴 갑자기 끊겼다고 했다. 쪽방상담소는 쪽방촌 회원증을 기준으로 주민들에게 생활필수품 배분, 세탁 및 샤워실 제공, 쉼터 제공 등의 지원을 해주는데, 조선족은 더 이상 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 다른 이동의 가능성이 생겨났고, 이것은 동자동의 조선족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정책의 변화에 대한 조선족들의 반응을 물었을 때 사회복지사 G씨는 “(조선족들은 동네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됐다”고 이야기하거나, 원래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은 욕을 하면서도 서울 시민들에게만 드릴 수 있다고 하니 까할 말이 없어서 인정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탈영토화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영토화로 이어진다. C씨는 동네를 기준으로 더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고물을 수집해 온 경력 덕분에 어디서 밥을 먹을 수 있는지를 많이 알고 있었다. 한 시간 간격으로 밥을 주는 곳들이 있었고, C씨는 자신의 움직임에 따라서 배고플 때 먹을 곳을 선택할 수 있었다. 동자동에서 계속 머무를 중요한 유인 중 일부가 사라졌지만, 동네에 정착해 살아가면서 대응전략은 늘어났다. C씨의 대응은 정주의 안정성을 박탈당한 전치(displacement)의 수동적인 모습이 아닌, ‘이동하면서 정주하는’ 조선족의 주체적 실천으로서 포착 가능하다. C씨에게 여전히 동자동은 살기 좋은 곳이었다.

C씨는 이동과 공간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의 삶에서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숨가쁜 움직임’은 일상적으로 드러난다(김택진, 2015). 그의 입장에서 이동을 한다는 것은 특정한 공간과는 분리된 채로 부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코로나19 때문에 식당에서 더 이상 일을 못 하게 되자, C씨는 고물 수집 노동을 시작했다. 고물 수집 노동은 다른 일보다도 공간과 긴밀하게 관계 맺는 작업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주변 지리, 지형을 잘 알고 있다. 짐을 많이 싣고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것은 평평한 지형을 잘 알고 찾아다니며 특히 동자동의 높은 경사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하는 일이다.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과정에서 C씨는 공간을 확장했다. 자신의 방보다도 거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주운 고물들은 종류가 다 다르고 매번 그것을 다 들고 팔리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보관을 위해 동네의 한켠을 사용해야 했다. 또, 사람들이 사용하다 버린 물건들은 동, 구리, 양철 등이 섞여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고물을 주우러 나가기 전후로 앉아서 해체할 공간도 필요했다. 따라서 C씨는 매번 동네 교회의 앞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점유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사회적인 공간을 점유하는 일이기도 했다. 앞을 지나면서 한 번씩 말을 건네는 주민들이 많았고, 때로는 옆에 같이 앉아서 시간을 보내거나 밥을 함께 먹었다. 자신이 쓰고 버리는 폐지를 가져다주거나 주변에서 무게가 나가는 고물을 보고 위치를 알려주는 주민들도 있었다. 박스를 함께 정리해 주기도 했다. 밖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멀고 높아서 가기 힘든 자신의 방 말고 다른 사람의 방을 빌려 사용했다.

한편 공간의 점유로 인해 갈등도 발생했는데, 고물을 덮어놓거나 리어카를 싸 놓은 천을 찢어놓는 주민들이 있었다. 자신이 맡아 정리하고 있었던 박스나 고철류를 도둑맞은 적도 있었다고 했다. 자신이 짐을 두다가 제재를 받았던 공간을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것에 화를 내기도 했다. 이렇듯 일을 바꾸어 머무르는 공간을 이동하는 것은 새롭게 공간에 정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었는데, 고물 수집 시장에 들어가는 자체는 해당 생태계 내의 경합과 공유를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C씨는 길거리에 쌓인 동네의 쓰레기를 정리하고, 고물을 정리하면서 나오는 나사들이 떨어져 있지 않도록 매번 길을 살폈고, 심지어는 망치질을 하기 위해서 쪽방촌 주민들이 어느 시간에 주로 쉬고 있는지도 알아야 했다.

## 5. 이동과 정주의 상호침투: ‘쪽방촌’을 재조율하다

본 절에서는 이동하면서 존재하는 조선족의 몸을 통해 그들이 거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들여다본다. 이동과 정주가 분리되어 있다는 개념적 틀은 지속적으로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를 경험하며 동자동에 머무르는 조선족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좋은 설명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움직임과 정착은 연속적·유동적으로 교차하고 또 경합한다. 이것은 이동이 곧 자유라거나, 정주가 곧 안정성이라는 오래된 신념 또한 효과적으로 무너뜨린다. 따라서 정주인지 이동인지 한 가지로 정의하기보다는, 정주나 이동 중 한 가지를 배제함으로써 특정한 움직임과 정착의 형태를 강요하고 또 불가능하게 하는 맥락과 과정을 들여다보게 한다. 여기에서 동자동 쪽 방촌은 이동과 정주의 이분법을 전제한 ‘이동하지 못함과 이동해야만 함’의 기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만들어내는 공간에 그치지 않음이 드러난다. 즉, 이것은 동자동을 둘러싼 견고한 경계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공간의 인식을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조선족의 이동이 동자동이라는 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은 연구참여자들이 살고 있는 건물이었다. B씨는 건물의 관리인 일을 제안받으면서 가장 먼저 들어왔다. 그게 10년 전이었고, 그 뒤로 집주인이 세 번 바뀌었다. 자신이 들어오기 전에는 건물에 조선족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13개 방 가운데 6명이 조선족이었다. 그는 건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D씨도 동네에 처음 왔을 때 B씨에게 방을 소개받아 들어오게 되었고, 다른 층에도 B씨를 보고 들어온 조선족들이 많았다. B씨는 다른 집들은 빈 방이 많은데 이 건물은 방이 다 차 있는 이유도 그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집집마다 붙어 있었던 공실 공고와 전화번호가 이 건물에는 붙어 있지 않았다. B씨는 집주인이 월세를 방마다 2만 원씩 올리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고 이야기했다. 자신은 월세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에도, ‘월세를 올리면 내가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조선족 주민들을 끌어오는 건물유지의 중심축인 B씨가 나감으로써 공실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 집주인이 더 이상 월세를 올리려 하지 않았다고 했다.

B씨가 이야기해 준 것은 조선족들이 이동을 통해 동자동 쪽방촌의 종속적

착취구조를 견고하게 하는 빈곤 비즈니스에 균열을 내는 방식이다. 이혜미(2019)는 동자동 내에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들의 빈곤한 상황을 활용하여 특정 계층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극대화하는 착취적 구조를 ‘빈곤 비즈니스’라고 명명했다. 빈곤 비즈니스는 노숙에서 벗어나려면 쪽방에 지낼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동시에 더더욱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동자동 내의 착취 시스템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B씨가 건물에 살 동안 집주인이 세 번 바뀌었다는 사실이 보여주듯 동네에 거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외부인을 통해 구성되고 있다. 하지만 B씨, 그리고 그와 함께 건물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옮겨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빈곤 비즈니스가 거주에 침투하려는 것을 막았다. 실제로 해당 건물의 월세는 보증금이 없는 17만~20만 원 정도로 다른 건물 앞에 적혀 있는 가격보다 낮았다. 동네에 오래 거주한 E, F씨에 따르면 특이하게 그 건물에 조선족이 많았고, 그것은 관리인이 조선족인 것과 분명히 관련이 있었다.

동자동에서 조선족들은 귀화하지 않는 몸, 이동을 경험해 온 몸으로서 차이를 공간에 들여다 놓고 있다. 귀화를 하지 않는 데는 한국의 귀화정책의 복잡함과 귀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본가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했다. 그들은 이동에의 가능성을 열어 둔 채로 동자동에서 지내고 있다. E씨는 조선족들은 공산주의적 생각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기질’이 다르다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A씨는 자신이 직접 한국에 들어와 살면서 발견한 차이들을 늘어놓았다. 예컨대 사회주의인 중국은 상사에게 굽히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A씨가 사회적 차별을 마주했을 때 일을 그만두고 바꾸는 등의 생활방식과 연결되어 있었다. D씨도 처음 한국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노동시간의 차이 때문에 느꼈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중국에서 8시간 동안 일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가 한국에 와서 12시간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살이 10킬로그램 넘게 빠졌었다고 했다. 이처럼 일상의 생활방식에서부터 나타나는 차이들을 내재하면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불가피



하게 서로의 마주침을 형성했다. E씨와 F씨는 이 동네는 방문을 잠그고 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누가 중국교포인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고 있었고, 외국인 등록증을 세 번째 잃어버린 위층의 조선족 주민이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재발급을 받으러 가거나, 방세를 빌려주는 등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었다.

조선족들은 건물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쪽방촌의 환경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A씨는 다 똑같이 생긴 쪽방들 사이에서 친구들이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할까 봐 문 앞에 큰 글씨를 써 두었다. 예전에 살던 옆방의 문에도 써 두었던 글이 있었는데, 더 이상은 보기 싫어서 주변 봉사단체에서 받아온 남은 페인트를 가지고 글씨를 흰색으로 덮었다. A씨는 이를 두고 “밖으면 들어올 때 보기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조선족과 한국인 연구참여자들에게 서로와의 마주침과 동네에서의 생활을 묻는 것은 동질적이고 폐쇄적이기보다는 이질적이고 역동적인 모습들을 포착하는 과정이었다. 이렇듯 조선족의 실천은 동네에 새로운 모습을 가져오면서 서로 다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기존에 주민들을 특정한 이동과 정주의 제한 아래에 가둬 두었던 공간적 구조에 균열을 낸다.

## 6. 결론과 함의

이동하면서 동시에 정주하는 주체로서 쪽방촌의 조선족은 쪽방촌에 거주한다는 것의 의미를 재고하게 하고 공간을 재조율한다. 첫째, 조선족은 정치적·사회적 이유들로 ‘이동됨’과 자발적인 ‘이동함’이 공존하는 이동성을 강하게 경험하고 있고, 쪽방촌에서 정주하는 것은 이러한 이동 궤적 위의 한 점으로 위치하며 이동의 가능성, 이동해 왔던 경험과 맞물리고 있다. 이것은 그들에게 역할과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사회, 코로나19나 차별과 같은 사회적 상황과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인들, 이동에 묻어 있는 정주의 기억들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이동을 내재화한 채로 조선족들은 동자동의

환경(milieu)과 관계 맺고 있다. 쪽방촌에서 거주하는 것을 공간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경험하는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연속적이고 복잡한 과정으로 살피는 것은 ‘이동 사이의 무의미한 일시적 거주’나, ‘이동하지 않는 영구적 정착’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발견하도록 한다. 조선족은 이동의 가능성과 정주를 통한 공간에의 적응이 얽혀 있는 삶 속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어떤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은 곧 그곳의 생태계와 긴밀하게 얽히는 정주의 작업이었다. 셋째, 이동하며 정주하는 삶은 공간을 새롭게 조율한다. 이동의 흔적은 정주에 드러나며 공간에 이질성을 들여놓고 차이의 마주침을 형성하였다. 또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개인들을 이용하여 이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즉 이동과 정주의 얽힘을 제거한 기존의 공간적 상상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조선족의 ‘이동하면서 정주하기’가 쪽방촌의 삶을 둘러싼 정책들에 함의를 제시하는 하나의 레이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쪽방촌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시도 중 하나로서, 연구는 기존에 빈민을 관리하고, 혹은 비가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동을 제한하고 동시에 축출하며 쪽방의 ‘덧’에 몸들을 고이게 했던 과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시선은 이동에서 정주를 탈각하고, 정주에서 이동을 탈각하여 거주하는 개인들의 일면을 선택적으로 포착한다. 쪽방촌 주민들은 쉽게 이식(transplant)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동시에 그곳에 고여 있어야만 하는 존재도 아니다. 두 가지의 인식은 정주, 이동이 얽혀 있는 맥락을 포함하는 것으로 다시 설계될 수 있다.

연구는 이동과 정주의 상호침투에 주목함으로써 어떤 것이 이동과 정주의 복잡한 얽힘 속에서 특정한 형태의 이동, 혹은 정착을 강요하거나 제거하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재개발 계획 등 쪽방촌 공간에 개입하는 정책들이 이러한 성찰의 대상이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벌면 수급의 대상이 되지 못해 주민들이 노동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지점을 갖고 있다. 공공 재개발 계획은 ‘선순환’을 중심으로 보다 주민들을 고려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명의도용 등의 외적인 요인들

로 인한 이동을 겪으며 쪽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동의 역사를 고려한 안전망이 함께 제안되어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 정주와 이동은 더 이상 분리되어 개인의 상태를 설명하거나 대안으로 제안되는, 멈추어 있는 개념이 아니다. 복잡한 얽힘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동과 정주의 맥락을 들여다보는 것은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보완될 지점을 제시하고, 기존의 것과 경합하는 것을 요구한다.

원고접수일: 2022.07.28.

심사완료일: 2022.08.29.

게재확정일: 2022.09.05.

최종원고접수일: 2022.09.16.

**Abstract**

**Moving-Dwelling Practice and Space:  
Chosunjok Migrants Living in Dongja-dong Jjokbangchon, Seoul**

Soyeon Park

Looking into the specific context of Chosunjok migrants living in Jjokbangchon (residential area with households that cannot reach minimum housing), Seoul, this study points out that mobility and sedentariness are interpenetrated by each other.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 are utilized to include the voice of migrants who have not gotten attention of discourses around Jjokbangchon. Research participants are living in Jjokbangchon while internalizing nomadism at the same time. Their life in Jjokbangchon is interlinked with their history of migration and continuing possibilities to move again. However, their settling in Jjokbangchon is more than meaningless temporary staying because they actively engage in the networks of the place experiencing continual deterritorialization-reterritorialization. Capturing the practice of ‘moving-dwelling’, this study goes beyond the sedentarist/nomadic binary on which many previous studies of migrants are grounded, being wary of simple and fixed meaning-making of each life form-mobility and sedentariness. New spatial imagination which ruptures existing spatial structure solidifying a poverty ‘trap’ by kicking out residents or locking people in the most fragile of homes can be found throughout the research.

**Keywords: mobility sedentariness migrant interpenetration poverty**

## 참고문헌

- 김진택. 2015. 「공간화의 새로운 모색: Portable Architecture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56호, 59~94쪽.
- 김은미 외. 2008. 「다민종·다민족 사회의 형성과 사회 조직: 서울의 외국인 마을 사례」. 《한국사 회학》, 제42권 2호, 1~35쪽.
- 김태희 외. 2018. 『모빌리티 사유의 전개』. 앨피.
- 박배균 외. 2004. 「세계화와 잊어버림의 정치: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거주지역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0권 4호, 800~823쪽.
- 박윤환. 2011.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 거주지분리에 대한 연구: 서울시 사례연구」. 《서울도시연 구》, 제12권 4호, 103~122쪽.
- 백일순. 2018. 「외국인 주택 시장과 초국가적 주택 여과 과정: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지리학회지》, 제21권 4호, 370~392쪽.
- 신혜란. 2017. 「이동통치와 불안계급의 공간전략」. 《공간과 사회》, 제62호, 9~35쪽.
- 이문영. 2020. 『노랑의 미로』. 오월의 봄.
- 이석준. 2014. 「조선족 밀집지의 형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 서울시 가리봉동과 대림2동, 자양 4동 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용균. 2015. 「모빌리티의 구성과 실천에 대한 지리학적 탐색」.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46호, 147~159쪽.
- 이유신. 2019. 「장애인의 이동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건사회연 구》, 제39호, 136~165쪽.
- 이지선 외. 2019. 「이동과 정주가 공존하는 경계 위의 집: 혼자 사는 청년들의 ‘집 만들기’ 실천과 ‘집’의 의미」.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2권 2호, 93~109쪽.
- 이진경. 2007. 『철학과 글뚫청소부: 데카르트에서 들뢰즈까지: 근대철학의 경계들』. 그린비.
- 이혜미. 2014. 『착취도시, 서울』. 글항아리.
- 이화용. 2015. 「중국국적 이주자 밀집지역의 엔클레이브화와 계도화에 대한 연구: 서울시 영등포 구 대림 2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기선 외. 2013. “2013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고 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 회생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정예슬. 2022. 「전치된 자들의 장소 만들기」. 《공간과 사회》, 제32권 1호, 82~114쪽.
- 정택진. 2021. 『동자동 사람들: 왜 돌봄은 계속 실패하는가』. 빨간소금.
- 조문영 외. 2019. 『우리는 가난을 어떻게 외면해왔는가』. 21세기북스.
- 존 어리. 2007. 『모빌리티』. 강현수·이희상 옮김. 아카넷.
- 탁장한. 2019. 「쪽방촌연구의 동향에 관한 탐구: ‘밀집된 빈민’에 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동향 과 전망》, 제107호, 153~200쪽.

- 피터 애디. 2017. 『모빌리티 이론』. 앨피.
- 한성미 외. 2009. 「소수민족집단지류지역(Ethnic Enclave)으로서의 엔벤거리의 장소성 형성 요인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제36권 6호, 81~90쪽.
- 홀리스행동 생애사 기록팀. 2021. 『힐튼호텔 옆 쪽방촌 이야기』. 후마니타스.
- Aagaard, J., Matthiesen, N. 2016. “Methods of materiality: participant observation and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Vol.13, pp.33~46.
- Collins, F. L. 2011. “Transnational mobilities and urban spatialities: Notes from Asia-Pacific.”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36, No.3, pp.316~335.
- DeCaroli, S. 2021. “Foucault’s Milieu.” *Ex-position*, Vol.45, pp.117~140.
- Erdal, M. B. 2021. “Migrants’ Multifocal Sedentarism: Ambivalent Belonging and Desired Recognition in Transnational Social Fields Connecting Pakistan and Norway.”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Vol.42, No.5, pp.643~659.
- Legeby, A. 2010. “From housing segregation to integration in public space.” *The Journal of Space Syntax*, Vol.1, No.1, pp.92~107.
- Lemke, T. 2015. “New Materialisms: Foucault and the ‘Government of Things’.” *Theory, Culture and Society*, Vol.32, No.4, pp.3~25.
- Lewis, H., Dwyer, P., Hodkinson, S., Waite, L. 2015. “Hyper-precarious lives: Migrants, work and forced labour in the Global North.”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39, No.5, pp.580~600.
- Marcu, S. 2019. “The limits to mobility: Precarious work experiences among young Eastern Europeans in Spain.”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Vol.51, No.4, pp.913~930.
- Morley, D. 2017. *Communications and Mobility*. Oxford: Blackwell.
- Morris, M. 1988. “At Henry Parkes motel.” *Cultural Studies*, Vol.2, No.1, pp.1~47.
- Murrugarra, E. 2011. *Migration and Poverty: Toward Better Opportunities for the poor*. The World Bank.
- Piper, N. 2022. “Temporary labour migration in Asia: The transnationality-precarious nexus.” *International Migration*. Vol.60, No.4, pp.38~47.
- Premji, S. 2017. “Precarious Employment and Difficult Daily Commutes.” *Département des relations industrielles, Université Laval*, Vol.72, No.1, pp.77~98.
- Schiller, Glick, Salazar, N. 2013. “Regimes of mobility across the glob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Vol.29, No.2, pp.183~200.
- Shin, H. 2021. “The Precarity and Strategic Navigation of Chosonjok Migrants in South Korea”, *European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20, No.2, pp.7~35.